

자동차

2026.06.24

5 월 유럽 자동차: 전기차 성장세 입증

자동차
마건우

02) 739-5939
kwma0330@
heungkuksec.co.kr

중국 저가형 BEV 침투 속 엔트리 라인업 대응력이 하반기 변수

5월 유럽(EU+EFTA+UK)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는 115.3만대(+3.5% YoY)를 기록. 이 중 BEV 등록 대수는 26.8만대(+38.8% YoY)로 전체의 23.3%를 차지했으며, PHEV 등록 대수 12.3만대(+14.0% YoY)를 포함한 전기차 비중은 34.0%를 기록. 이처럼 유럽 전기차 비중은 올해 꾸준히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5월 누적 BEV 등록 대수 또한 124.8만대(+31.1% YoY)를 기록하며 유럽 전기차 시장이 재차 성장 국면에 진입했음을 입증하였다 판단.

이러한 시장 회복에 힘입어 중국 전기차의 유럽 침투 속도도 가속화되는 모습. 5월 BYD 등록 대수는 32,380대(+136.6% YoY), Chery는 27,412대(+244.1% YoY)를 기록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여줌. 작년년부터 본격적인 수출이 진행된 만큼 낮은 기저에 따른 YoY 성장을 확대 효과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 다만 현재 BEV 수출 물량에 대해 BYD 27.4%, Chery 30.7%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을 감안,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상당히 위협적인 속도로 유럽 시장 내 입지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반면 현대차는 5월 유럽 전기차 소매판매가 7,004대(+0.3% YoY)에 그치며 유럽 전기차 시장 확대의 수혜에서 다소 소외. 이는 유럽 내 전기차 수요가 상대적으로 저가형 모델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 중국 저가 전기차의 침투 확대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 OEM들의 공격적인 인센티브 집행이 맞물리며 유럽 전기차 시장 내 가격 경쟁은 심화되고 있음. 현대차의 주력 BEV인 IONIQ 5/6는 5만유로 이상의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어, 현재 유럽 전기차 성장의 중심축인 엔트리급 수요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상황. 다만 하반기 출시 예정인 IONIQ 3를 통해 저가형 EV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반기에는 유럽 전기차 시장 성장 흐름에 동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기아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중. 5월 유럽 전기차 소매판매는 17,227대(+107.4% YoY)로 EV2, EV5, PV5 등 전기차 신차효과에 기반한 높은 성장세를 시현. 특히 신규 엔트리 BEV인 EV2는 4월부터 본격적인 판매(4월 2,142대, 5월 2,703대)가 진행된 점을 감안, 하반기 판매 확대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 기아는 EV2를 중심으로 유럽 내 엔트리 전기차 수요에 대응하며 전기차 판매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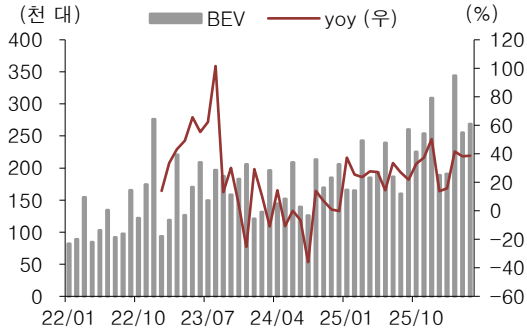
현재 독일 판매가 기준 기아 EV2는 기본 모델 €26,600부터, 롱레인지 모델은 €33,490부터 시작. 유사 사양으로 비교 가능한 BYD Dolphin Surf Boost 모델이 €26,990부터 판매되고 있음을 감안, EV2는 중국 저가형 전기차와 충분히 경쟁 가능한 가격대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 현대차 IONIQ 3의 경우 €34,000 수준에서 출시될 것으로 추정하며, 주행거리가 EV2 롱레인지 모델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EV2와 유사한 가격 포지션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가격 경쟁력으로 기반으로 하반기 해당 모델들의 판매량 확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 다만 우려 요인은 BYD 헝가리 공장이 올해 4분기부터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라는 점. 관세 부담 완화를 기반으로 BYD의 가격 대응 여력이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유럽 엔트리 EV 시장의 가격 경쟁이 내년부터 한층 심화될 가능성을 시사.

표 1 제조사별 유럽 5월 신차 등록 대수

제조사	점유율		등록 대수		점유율		등록 대수	
	26/05	25/05	26/05	25/05	2026 YTD	2025 YTD	2026 YTD	2025 YTD
VW Group	26.1%	27.8%	300,299	309,686	25.8%	26.7%	1,501,669	1,486,634
Volkswagen	10.5%	11.5%	121,318	127,404	10.1%	11.1%	590,820	615,726
Skoda	6.2%	6.5%	71,591	72,707	6.4%	6.0%	371,287	334,547
Audi	5.0%	5.0%	58,030	55,564	5.0%	4.9%	288,661	270,575
Stellantis	14.3%	15.2%	164,958	168,918	15.5%	15.4%	905,444	860,037
Peugeot	4.4%	5.2%	50,277	57,504	4.8%	5.4%	281,661	302,980
Opel/Vauxhall	3.1%	3.1%	36,291	34,140	3.2%	2.9%	188,427	163,760
Citroen	2.7%	2.9%	31,665	32,177	3.0%	2.8%	174,021	155,815
Fiat	2.6%	2.2%	29,740	24,670	2.8%	2.3%	161,716	126,706
Jeep	0.9%	1.0%	10,324	11,616	1.0%	1.1%	59,361	61,482
Renault Group	9.6%	10.0%	110,124	111,244	9.2%	10.2%	535,295	565,837
Renault	5.3%	5.5%	61,213	61,209	5.3%	5.6%	311,395	312,756
Dacia	4.1%	4.4%	47,690	49,325	3.7%	4.5%	218,392	249,390
Alpine	0.1%	0.1%	1,221	710	0.1%	0.1%	5,508	3,691
Hyundai Group	7.5%	8.0%	86,444	88,605	7.5%	8.0%	434,964	445,616
Kia	4.3%	3.9%	49,382	42,965	4.1%	4.1%	237,656	226,060
Hyundai	3.2%	4.1%	37,062	45,640	3.4%	3.9%	197,308	219,556
BMW Group	7.1%	7.1%	82,277	79,073	7.0%	7.1%	409,638	396,393
BMW	5.7%	6.0%	65,688	66,974	5.7%	5.9%	332,976	331,031
MINI	1.4%	1.1%	16,588	12,099	1.3%	1.2%	76,661	65,362
Toyota Group	6.8%	7.1%	78,168	78,639	6.7%	7.2%	391,443	399,318
Toyota	6.3%	6.5%	72,180	72,020	6.2%	6.6%	361,544	365,929
Lexus	0.5%	0.6%	5,988	6,619	0.5%	0.6%	29,899	33,389
Mercedes-Benz	4.9%	5.0%	56,185	55,859	4.8%	4.9%	278,929	271,315
Geely Group	3.3%	3.0%	38,146	33,877	3.0%	3.0%	176,676	165,958
Ford	2.2%	3.2%	25,290	35,277	2.7%	3.4%	156,933	188,822
SAIC Motor	2.6%	2.4%	30,527	26,802	2.4%	2.3%	141,490	126,802
BYD	2.8%	1.2%	32,380	13,687	2.3%	1.0%	135,307	55,183
Nissan	1.5%	1.9%	17,730	21,111	2.1%	2.5%	125,207	141,295
Chery Auto	2.4%	0.7%	27,412	7,966	2.1%	0.5%	122,843	29,533
Tesla	2.5%	1.2%	28,610	13,760	2.0%	1.3%	118,068	75,103
Suzuki	1.2%	1.2%	13,965	13,664	1.3%	1.4%	75,591	78,192
Mazda	1.1%	1.1%	12,597	11,858	1.3%	1.2%	73,830	66,125
Jaguar Land Rover Group	0.9%	0.9%	10,086	10,153	1.0%	1.1%	59,007	61,403
Leapmotor	0.9%	0.2%	9,945	1,760	0.7%	0.1%	43,037	6,592
Honda	0.5%	0.5%	5,695	5,257	0.6%	0.6%	33,527	31,538
Mitsubishi	0.2%	0.4%	2,269	4,103	0.2%	0.4%	12,156	21,2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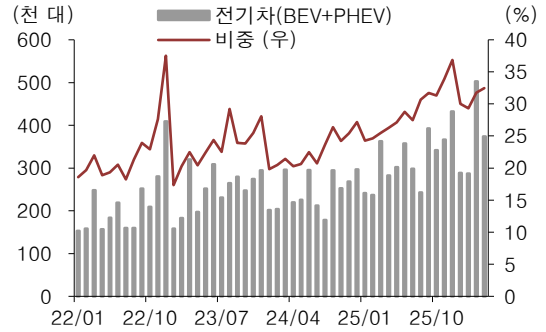
주: EU + EFTA + UK 기준
자료: ACEA,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 유럽 BEV 등록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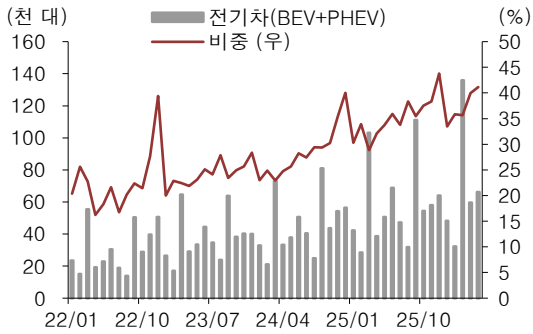
주: EU + EFTA + UK 기준
자료: ACEA, 한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유럽 전기차(BEV+PHEV)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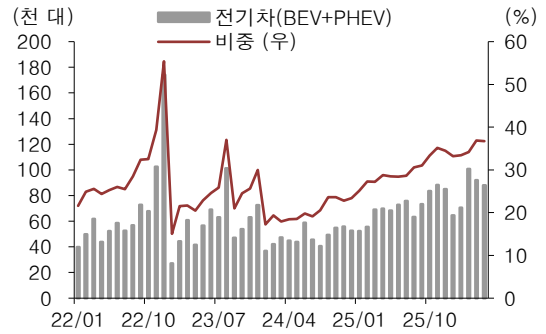
주: EU + EFTA + UK 기준
자료: ACEA, 한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영국 전기차(BEV+PHEV)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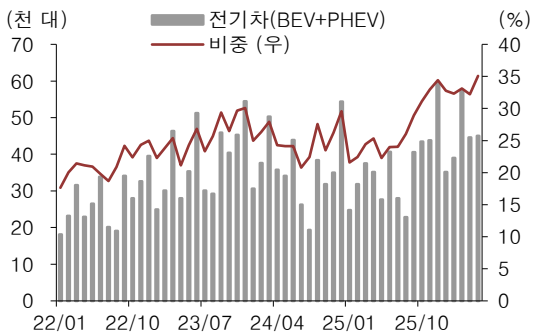
자료: ACEA, 한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독일 전기차(BEV+PHEV)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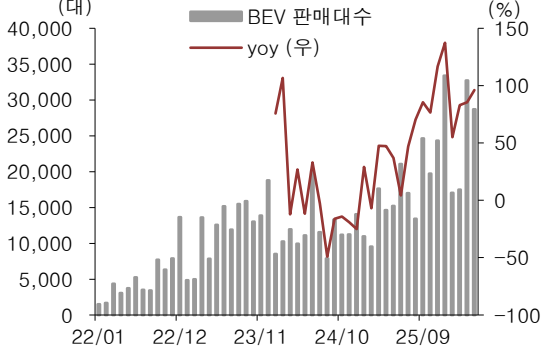
자료: ACEA, 한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프랑스 전기차(BEV+PHEV)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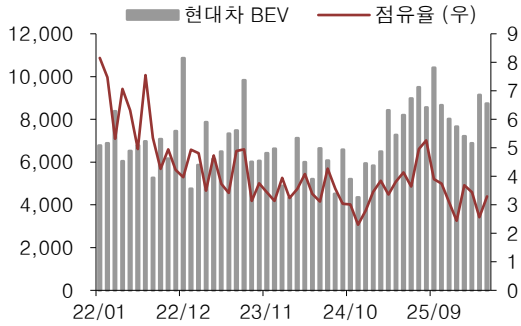
자료: ACEA, 한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유럽 내 중국 BEV 판매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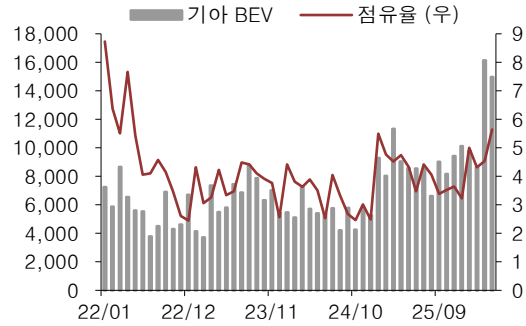
주: Volvo 및 Polestar 제외
자료: Marklines, 한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현대차 유럽 BEV 소매판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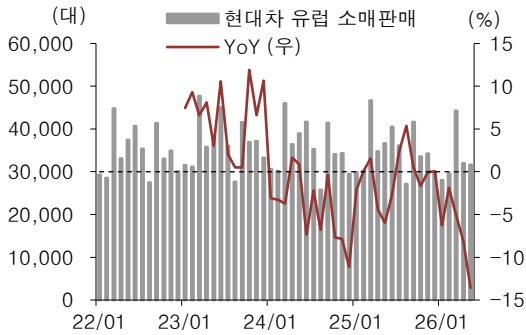
자료: Marklines, 홍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기아 유럽 BEV 소매판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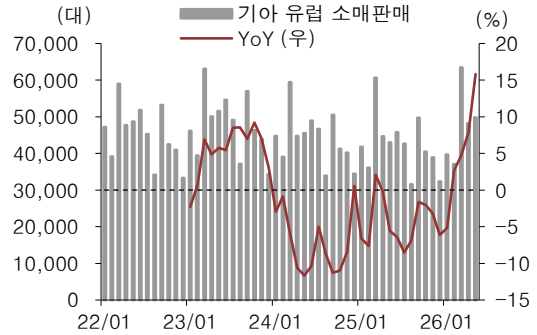
자료: Marklines, 홍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현대차 유럽 소매판매 추이



주: Europe Subsidiary 기준
자료: 현대차, 홍국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기아 유럽 소매판매 추이



주: Western Europe 기준
자료: 기아, 홍국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보고서 제공시점 현재 상기 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동 보고서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는 상기 종목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보고서 제공시점 기준으로 지난 6개월간 상기 종목의 유가증권 발행에 주간사로 참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보고서는 당사 고객들의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신뢰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보고서가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동의없이 무단 복제, 대여, 전송, 변형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홍국씨앗체

본 보고서에 사용된 홍국씨앗체는 홍국의 기업철학 모티브를 반영한 글씨체로서, 세계 3대 디자인상인 독일 '2015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커뮤니케이션 분야 브랜드 아이덴티티 부문 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친근하고 희망적인 느낌의 홍국씨앗체는 고객존중과 으뜸을 지향하는 홍국의 아이덴티티를 부각시킵니다.